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德 子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1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英語學專攻

崔 暻 姝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 德 子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1

위 論文을 英語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英語學專攻

崔 暻 姝

崔璟姝의 英語學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5年 12月

심 사 위 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2.1 문화의 정의	4
2.2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	6
2.3 문화 교육의 필요성	8
2.4 문화 유형에 대한 연구	10
제 3 장 연구 방법	14
3.1 연구 대상	14
3.2 연구 방법 및 분석 기준	14
제 4 장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결과	17
4.1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17
4.1.1 문화 유형별 종합 분석	17
4.1.2 교과서별 문화 유형 분석	23
4.2 언어 기능에 따른 분석 결과	31
4.2.1 언어 영역별 분석 결과	31
4.2.2 언어 기능별 분석 결과	35
제 5 장 결론 및 제언	39
참고문헌	42
ABSTRACT	44

<표 목 차>

<표 2-1> Brooks(1964), Chastain(1976)과 Hendon(1980)의 문화의 정의	5
<표 2-2> Bierstedt(1970)의 유형별 문화 소재 분류표	11
<표 2-3> Chastain(1976)의 문화 주제 분류표	12
<표 2-4> Finocchiaro와 Bonomo(1973)의 단계별 문화 분류	13
<표 3-1> 분석 대상 영어 교과서(제 7차 교육 과정 시행 교과서)	14
<표 3-2> 문화 유형에 따른 하위 범주의 문화 내용	15
<표 4-1> 문화 유형별 교과서 내용 구성 비율	18
<표 4-2> 언어 영역별 문화 유형 분류표	32
<표 4-3> 언어 기능별 (음성/문자) 문화 내용 분석	36
<표 4-4> 언어 기능별 (이해/표현) 문화 내용 분석	37

< 그림 목차 >

<그림 4-1> 3종 교과서 문화 유형별 문화 내용 분포	19
<그림 4-2> 행동문화 하위 항목	20
<그림 4-3> 물질문화 하위 항목	21
<그림 4-4> 정신문화 하위 항목	22
<그림 4-5> A 교과서 문화 유형별 분포	25
<그림 4-6> B 교과서 문화 유형별 분포	28
<그림 4-7> C 교과서 문화 유형별 분포	31
<그림 4-8> 3종 교과서 언어 영역별 분포도	35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인 외국어 교육 특히 세계 공용어인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에 의하면 영어과의 목표는 영어를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에 두고 있다.¹⁾ 즉, 영어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지도와 언어적인 측면의 지도가 병행되어 영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토대로 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목표 언어²⁾와 그 언어 사회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길러진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목표 언어에 대한 정확한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문화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즉 한 언어를 학습할 때 상황에 맞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 기능 뿐 아니라 그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수년간 영어를 배우고서도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적절한 의사소통을 이어 나가지 못한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교육이 언어기능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고, 영어권 국가의 문화 지도에 소홀히 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완전히 EFL(English as a Foreign

1)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 대한교과서

2) '목표언어(Target Language)'란 배우고자 하는 대상 국가의 언어를 말한다.

Language)상황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어 수업 시간에 한정된 분량의 영어를 학습하고 이를 그 외의 시간이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영어 수업 시간 내에서도 문화적 이해를 통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수업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교재는 영어교과서이다. 교과서가 중심이 되는 학습 환경에서 교과서는 수업의 내용과 효과 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언어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충분한 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 문화내용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교육 자료이므로 교과서는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적 역할과 그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도부터 중학교에 도입된 제 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1997)에서는 영어교육의 목표로 외국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또한 내용 체계 면에서도 언어재료의 영역으로 소재, 언어, 어휘에 문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 만큼 문화교육이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문화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과서의 소재 및 내용을 적절히 선정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중학교 영어 교실에서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들이 학생들의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문화적 내용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와 언어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영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을 주지시켜 연구의 근거로 삼는다.

둘째, 제 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3) EFL상황이란 모국어가 있고 영어는 단지 선진국의 지식습득, 교양증진, 국제이해와 협력 등을 위해서 외국어(Foreign Language)로 사용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현구, “영어학 연구”, 서울: 백산출판사 1997, p.234)

문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문화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일상생활 체험에서의 여러 가지 표현 익히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동문화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문화와 문화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분석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의 정의,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 문화교육의 필요성, 문화 유형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현행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을 소개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문화유형, 언어기능에 따른 기준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간략하게 되짚어 본다. 또한 분석 결과가 던져주는 시사점도 살펴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문화의 정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문화를 보는 견해가 다양하고, 막연한 것이어서 문화를 한 두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화를 포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의를 내리는 학자가 있고, 문화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을 몇몇 외국어 교육자들이 언급한 대표적인 몇 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먼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Goodenough(1964)는 문화란 물질이나 인간의 행동 그리고 감정을 구성하는 물질적 현상들이 조직화된 것으로 인간이 이해하고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며 또한 사회에 속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의해 믿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Brown(2000)도 문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는데 “문화란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복합체이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사고, 관습, 기술이나 예술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업적 등이 문화의 산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학자들과는 달리, Brooks(1964)는 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문화(little c)와 인간 생활의 최상의 것만을 뽑아놓은 문화(big C)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big C’ 문화란 문학, 고전음악, 무용, 건축, 예술작품 등 어떤 문화에서 가장 유용하고 대표적인 산물만 뽑아 놓은 것이고, ‘little c’ 문화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동과 언어적 행동, 태도, 신념,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한 것이다.

Chastain(1976)도 문화를 소문화(small culture)와 대문화(large culture)로 나누었는데, ‘소문화’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대문화’는

그 문화 사회 내에서의 일반적인 인물, 혹은 특출한 개인의 작품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소문화’는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양식 위주의 문화를, ‘대문화’는 주로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위대한 인물 등을 다룬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학자들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초기에는 ‘big C’ 나 ‘대문화’보다는 ‘little c’ 나 ‘소문화’의 문화내용을 학습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외국어 학습의 초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 외국의 일상적인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일찍 배우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그 문화에 접하여 언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Hendon(1980)은 문화를 ‘대문자 C’와 ‘소문자 c’로 구분한다. ‘대문자 C’에 속하는 문화는 예술, 철학, 문학 등 개인이나 집단의 업적에 관한 것이며 ‘소문자 c’에 속하는 문화는 관습,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다른 문화권 집단과 구별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인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을 포함한다고 하여 위 두 학자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화를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세 학자의 견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대문화’, ‘big C’, ‘대문자 C’ 문화는 공통적으로 예술, 문학과 같은 그 사회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소문화’, ‘little c’, ‘소문자 c’문화는 공통적으로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2-1> Brooks(1964), Chastain(1976)과 Hendon(1980)의 문화의 정의

문화	Brooks(1964)	Chastain(1976)	Hendon(1980)
대범주	big C 문화(culture)	large culture	대문자 C
소범주	little c 문화(culture)	small culture	소문자 c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관적으로 문화의 정의가 서로 각기 상이한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맥락을 가지고 약간의 견해 차이만을 달리 하고 있다.

2.2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 사상과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서, 그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표현되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언어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먼저, 언어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 쪽에서 살펴보면, 한 언어란 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집단의 생활양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히말라야 고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작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하루, 이틀, 사흘, ...’ 등으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한다.⁴⁾

즉 ‘밭 한 평’이 아니고 ‘밭 하루’처럼 나타낸다. ‘밭 하루’란 ‘하루에 갈 수 있는 밭의 면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간 개념의 단위로 나타냈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Gleason(1961)에 의하면 에스키모인들의 일상생활은 아무래도 눈(雪)과 많은 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눈’을 지칭하는 단어의 수가 다른 언어에서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지금 내

4) 전정례. (1999). 언어와 문화. 서울: 박이정 p.97

리고 있는 눈, 내려서 쌓인 눈, 집을 짓는데 쓰인 눈...' 등에 대해서 모두 각각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유진형(1980)에 의하면 벼농사를 짓는 우리나라는 영어로 'rice' 를 나타내는 말이 '쌀', '밥', '벼' 등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목축 또는 육식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어권 문화에서는 한국의 '고기'에 대하여 beef, pork, chicken, mutton, venison 등으로 세분화 된다고 언급하면서, 목축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어의 어휘에는 육류에 대한 단어가 풍부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독특하게 발달한 이러한 어휘들은 각각 그 나라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나타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으로 이 말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는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이 견해는 Sapir-Whorf(1956)의 가설에 기반을 둔다.⁵⁾ Sapir-Whorf의 가설에 의하면, 우리들의 사고 과정이나 경험 양식은 언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언어에 따라 사고와 경험의 양식도 달라진다고 한다. 즉, 언어는 사람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규정하며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입장을 언어 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이라고도 한다. 언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권의 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 대화에서 문화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고 형식의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결정론자들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사고 구조 내지 의식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어떤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화

5) Brown(1980)은 언어가 사람의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Wilhelm von Humboldt (1767-1835)의 생각에 입각해서 Sapir와 Whorf가 Whorf식 가설, 언어 상대성 이론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갖게 된 가설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Brown, H. D.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0)

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 문화 교육의 필요성

지금까지 언급한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점을 반영해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Fries(1955)는 “어떤 국민의 문화와 생활을 다룬다는 것은 언어 학습의 모든 단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즉 문화란 제 2언어 프로그램에서 부속물이 아니라, 제 2언어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화 내용을 이해함이 없이는 언어를 가르칠 수 없고,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 유형(cultural pattern)과 그 가치를 모르고서는 참된 언어의 학습도 있을 수 없다.” 며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hastain(1976)은 “제 2언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외국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이뤄내는 능력은 단지 언어적인 기술 뿐 아니라 문화 특유의 습관과 기대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2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성공적인 상호간의 문화 교신이 언어적인 기술보다 더 크게 다뤄진다.” 라며 외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Rivers(1981)도 “Language learning is culture learning”이라는 말로 언어학습에 있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외국어 교육의 7가지 목표 안에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첫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 학생의 지력을 개발할 수 있다.

- 둘째, 외국의 문학 작품, 과학 서적 등을 읽어 개인의 교양을 넓힌다.
- 셋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기능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모국어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 넷째, 외국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어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저술, 연구 결과 및 기타 제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다섯째, 학생들이 목표 언어의 틀 속에서 자신을 표현해 볼 수 있다.
- 여섯째, 목표언어 사용자들의 문화양식, 사고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일곱째, 외국어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언어만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력과 교양을 키우며 국제적 이해를 높여야 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문화적 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은 그들이 배우는 언어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오해는 경멸과 적개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교육은 외국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해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와 함께 외국 문화에 대한 적절한 소개는 학생들의 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고 외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 한계에서 벗어나 타국문화와 자국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화 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문화 교육은 외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지

적 지식뿐 아니라 정서적 지식까지 갖추도록 함으로써 인격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2.4 문화 유형(cultural pattern)에 대한 연구

문화가 여러 요소나 특질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때 그 여러 요소와 특질이 통합 형성되어 체계를 이룬 유형을 문화 양식 또는 문화 유형이라고 한다. 문화는 여러 방법으로 분류되고 해석됨으로써 문화 유형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남은희, 2001).

Bierstedt(1970)⁶⁾는 문화를 정신(ideas, thinking), 행동(norms, doing), 물질(material, hav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신문화는 인간이 생각하는 문화로, 과학적 사실, 종교적 신념, 전설, 문학, 미신, 격언, 속담, 민속 등이 이에 속하며, 행동문화는 사고방식(ways of thinking)이 아닌 행동방식(ways of doing)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편지쓰기, 수업에 참석하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 축구경기 보기, 식료품 사기, 교통수단 이용, 티켓 구입하기 등이 이에 속하며 또한 법률, 규칙, 명령, 관습, 유행, 의식 예절, 인습 등 규범으로 행하여지는 문화들도 포함이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질항목(material item)인 물질문화는 기계, 도구, 기구, 건물, 도로, 다리, 가공품, 의복, 차량, 가구, 음식물, 의약, 컴퓨터 등이 이에 속한다.

6) Bierstedt, R, The Social Order, New York: Magraw-Hill Company, 1970

<표 2-2 > Bierstedt(1970)의 유형별 문화소재 분류표

문화 유형	문화 소재
정신문화	과학적 사실, 종교적 신념, 전설, 문학, 미신, 격언, 속담, 민속 등
행동문화	편지쓰기, 수업에 참석하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 축구 경기 보기, 식료품 사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티켓 구입하기
물질문화	기계, 도구, 기구, 건물, 도로, 다리, 가공품, 의복, 차량, 가구, 음식물, 의약, 컴퓨터 등

Chastain(1976)⁷⁾은 문화의 주제를 통한 유형을 전형적인 학교생활, 화폐, 음식, 여가활동, 직업, 행복, 성공, 남녀의 사회적 역할 등 44개의 주제로 분류하였고, 문화 교육을 위한 주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7) Chastain, K,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6, pp. 60-70

<표 2-3> Chastain(1976)의 문화 주제 분류표

1	전형적인 학생 활동	23	경제제도
2	전형적인 대화	24	애국심
3	학생들의 생각	25	여권해방
4	돈	26	전쟁과 평화
5	식사와 음료	27	변화와 발전
6	여가 활동	28	생태계
7	직업	29	인구
8	행복	30	종교
9	성공	31	범죄
10	부모	32	법
11	부모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	33	유머
12	사회 속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	34	좋은 태도
13	가족	35	광고
14	친척	36	언론
15	청춘기	37	개인 자유
16	연애 기간과 결혼	38	죽음
17	교육	39	규율
18	친구	40	휴일
19	사회제도	41	의상
20	세대 차	42	교통
21	의약품	43	인사말
22	젊은이의 정치 참여	44	몸짓과 표정

Chastain(1976)의 분류는 문화를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나타내어 상위개념에서의 영역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비해 Finocchiaro와 Bonomo(1973)⁸⁾의 분류는 영어를

8) Finocchiaro, M. and Bonomo, M.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A guide for teachers. New York: Regents Publishing Co. 1973, pp. 60-63

처음 시작한 시기에 따라 가르쳐야 할 문화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놓았다.

<표 2-4 > Finocchiaro와 Bonomo(1973)의 단계별 문화 분류

1단계	1) 소개 및 자기 확인 (Introductions and identification)
	2) 인접한 교실(The immediate classroom)
	3) 학교 (The school)
	4) 가족 (The family)
2단계	1) 가정 (Home)
	2) 가족 (The family)
	3) 주변 공동 사회(The immediate community)
	4) 명절 (Holiday)
3단계	1) 교육 기회
	2) 정부, 종교, 사회 기관
	3) 보다 넓은 공동 사회로의 여행
	4) 보다 먼 친척
	5) 관습적 행사
	6) 휴가 (산, 해변, 가정)
	7) 음악, 문화, 예술
	8) 취미, 여가 활동
	9) 직업의 세계
	10) 상호 문화적 개념

이상의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문화의 유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의 영역이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예술과 같이 구체적이거나 물질적인 내용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사람들의 행동양식, 신념,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 1학년 13종 교과서 중 2005년도 7월 네티즌이 뽑은 교과서 1위에서 3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고,⁹⁾ 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 대상의 교과서에 대한 책이름, 저자, 출판사 등은 <표 3-1>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사용한 기호는 A, B, C 순으로 정리하여 사용했다.¹⁰⁾

<표 3-1> 분석대상 영어 교과서(제 7차 교육과정 시행 교과서)

책이름	출판사	저 자	기 호
Middle School English	디딤돌	김용진 외	A
	천재교육	이병민 외	B
	두산(장)	장영희 외	C

3.2 연구 방법 및 분석 기준

제 7차 교육과정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문화내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가 어느 정도 문화교육을 고려하고 있으며 문화내용의 선정과 배열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이다. 문화 유형 분석은 Bierstedt(1970)가

9) <http://www.naver.com/>

10) 필자의 연구상 필요에 의해 정리함.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즉 정신문화, 행동문화, 그리고 물질문화를 상위범주로 하여 분석한다. Bierstedt(1970)가 제시한 문화 유형 분류의 분석 기준 항목을 상위 범주로 하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재 선정 기준에 따라서 Finocchiaro와 Bonomo(1973), Chastain(1976)이 제안한 항목을 하위 항목과 그 내용으로 나누어 그 유형을 구분하여 <표 3-2>에서 제시하였다.

<표 3-2> 문화 유형에 따른 하위 범주의 문화내용

문화유형	하위 항목	내 용
정신문화	국민성/가치관	가치, 유머, 미덕, 기질, 자세 등
	역사/종교	역사, 유래, 신앙심, 신화, 전설, 미신 등
	언어/신체언어	속담, 유행어, 손짓, 몸짓, 광고, 관용적 표현 등
	인물	일화, 자서전, 전기 등
	문학/예술	시, 소설, 희곡, 수필, 우화, 그림, 음악, 이야기 등
행동문화	법/규범/범죄	사회제도, 법률, 규약, 금기 등
	인사/소개	인사법, 인사예절 등
	가족/일상생활	가족, 친척, 결혼, 건강 등
	교육/학생활동	학습, 교육체계, 교실, 학생활동 등
	사회활동	쇼핑, 환경보호, 병원, 직업, 진로, 친구, 약속, 초대, 전화 걸기, 길 묻기, 시간 묻기,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 등
	편지/일기쓰기	편지쓰기, 일기쓰기 등
	관습적 행사	명절,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일, 축제, 풍속, 풍습, 관례 등
	여가활동	춤, 운동, 취미, 게임, 여행 등
물질문화	문물 환경	건물, 풍경, 유적지, 유물, 화폐 등
	의식주	음식, 음료, 의복, 주택, 주거환경, 가구 등
	자연	동물, 식물, 날씨, 지형, 계절, 시차 등
	교통/통신/과학	도로, 교량, 대중매체, 컴퓨터, 기계 등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통해서 문화유형에 따른 문화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3종 교과서의 문화 유형 분석은 각각의 교과서 매 단위마다 어떠한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문화유형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한 단위에 둘 이상의 문화내용이 나타나면 각각 해당 문화에 다 표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단위에서 같은 항목의 문화 내용이 다시 이루어질 때에도 그 단위에 다시 그 항목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서의 문화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함으로써 문화 유형과 내용의 다양성 정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둘째, 문화 내용을 언어 영역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제 7차 외국어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언어 기능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의 성취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그 구성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네 영역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거나 학습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편의상 가장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언어 기능에 따른 문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원칙으로 분석한다.

3종 교과서가 담고 있는 문화 내용의 언어 기능별 분석은 문화 유형 분석과 같이 한 단위에 둘 이상의 문화가 나타나면 각각 해당 문화에 다 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함으로써 이해기능(듣기, 읽기)과 표현기능(말하기, 쓰기), 그리고 음성언어 기능(듣기, 말하기)과 문자언어 기능(읽기, 쓰기)으로 구분하여 어느 기능이 주로 쓰여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4 장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문화 내용을 문화 유형별, 언어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문화 유형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4.1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4.1.1 문화 유형별 종합 분석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3종 교과서들 역시 많은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1>에 나타나듯이 문화유형의 분류를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 중 행동문화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물질문화, 정신문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어 교육에서 전달해야 할 바람직한 내용으로 과거의 문화 업적(big C)보다 현재의 생활양식(little c)을 더 강조한 Brooks(1964), Chastain(1976) 그리고 Hendon(1980)의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문화 유형별 종합분석에서 행동문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종 교과서 문화유형별 분석은 다음 <표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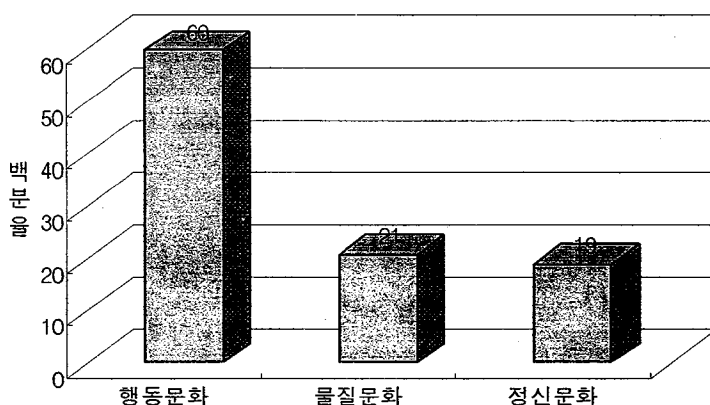
< 표 4-1 > 문화 유형별 교과서 내용 구성 비율

(단위: 빈도, ()는 %)

문화 유형	하위 항목	내 용	교과서			합계
			A	B	C	
행동 문화	법/규범/범죄	사회제도, 법률, 규약, 금기 등	1	2	1	4(4%)
	인사/소개	인사법, 인사예절 등	6	5	2	13(16%)
	가족/일상생활	가족, 친척, 결혼, 건강 등	3	2	1	6(7%)
	교육/학생활동	학습, 교육체계, 교실, 학생활동 등	6	3	4	13(16%)
	사회활동	소풍, 환경보호, 병원, 직업, 진로, 친구, 약속, 초대, 전화 걸기, 길 묻기, 시간 묻기,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 등	8	12	7	27(33%)
	편지/일기쓰기	편지쓰기, 일기쓰기 등	2	2	1	5(6%)
	관습적 행사	명절,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일, 축제, 풍속, 풍습, 관례 등	3	1	2	6(7%)
	여가활동	춤, 운동, 취미, 게임, 여행 등	1	5	3	9(11%)
계			30(65%)	32(63%)	21(51%)	83(60%)
물질 문화	문물/환경	건물, 풍경, 유적지, 유물, 화폐 등	1		2	3(10%)
	의식주	음식, 음료, 의복, 주택, 주거 환경, 가구 등	5	3	1	9(31%)
	자연	동물, 식물, 날씨, 지형, 계절, 시차 등	4	6	2	12(42%)
	교통/통신/과학	도로, 교량, 대중매체, 컴퓨터, 기계 등	1	3	1	5(17%)
계			11(24%)	12(24%)	6(15%)	29(21%)
정신 문화	국민성/가치관	가치, 유머, 미덕, 기질, 자세 등	1	3		4(15%)
	역사/종교	역사, 유래, 신앙심, 신화, 전설, 미신 등		1	1	2(8%)
	언어/신체언어	속담, 유행어, 손짓, 몸짓, 광고, 관용적 표현 등	2	3	2	7(27%)
	인물	일화, 자서전, 전기 등	1		2	3(12%)
	문학/예술	시, 소설, 희곡, 수필, 우화, 그림, 음악, 이야기 등	1		9	10(38%)
계			5(11%)	7(13%)	14(34%)	26(19%)

<표 4-1>와 같이 3종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문화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동문화는 83회 다루어져 60%를 차지하며, 물질문화가 29회 다루어져 21%를 차지하고, 정신문화는 26회 다루어져 19%를 차지하였다. 대다수의 교과서가 행동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행동 문화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교육/학생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시선에서 보면 영어권 나라 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기에 교과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리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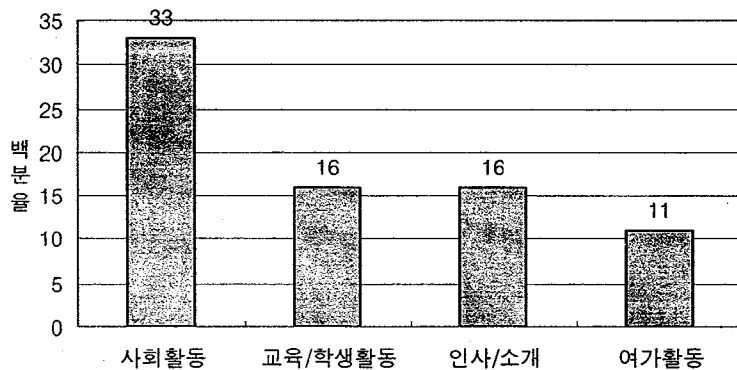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동문화 중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목표 문화를 접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생활양식이나 관습과 관계되는 행동문화와 자연이나 의식주 같은 물질문화의 내용을 많이 접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문학이나 예술 등과 같은 정신문화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행동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의 전체 비율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3종 교과서 문화 유형별 문화내용 분포

<표 4-1>을 보고 각 문화의 유형별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동문화가 60%로써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사회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항목들은 교육/학생활동, 인사/소개, 그리고 여가활동 순서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회활동 항목은 그 영역 자체가 보다 포괄적이며, 실제로 행동문화 영역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문화 내용들이 다른 항목들보다 많으므로 그 빈도도 높은 건 당연한 것이다. 사회활동 항목에서도 주로 다루어진 문화내용은 쇼핑, 음식주문, 약속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 등이다. 이는 초급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게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는 행동 문화 하위 항목 중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네 가지 항목만을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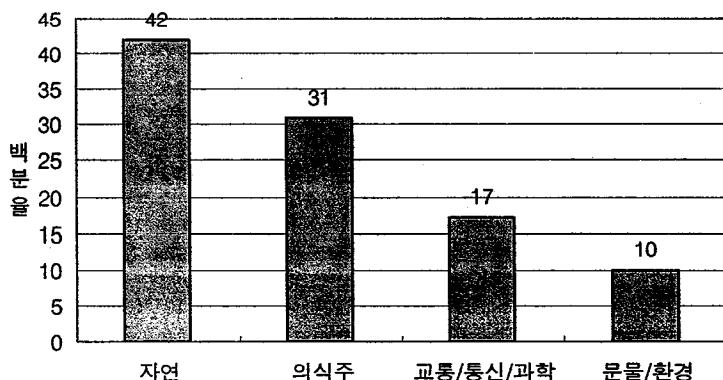


<그림 4-2> 행동 문화 하위 항목

다음 <그림 4-3>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문화를 보면 네 가지 하위항목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부분은 자연과 관련된 부분이며, 다음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이고, 교통/통신/과학과 문물/환경에 관련

된 항목 순서로 나타났다.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이유는 무난한 소재이고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날씨나 지형을 다룬 자연을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려함으로 생각된다.

<그림 4-3>은 물질문화의 네 가지 항목의 백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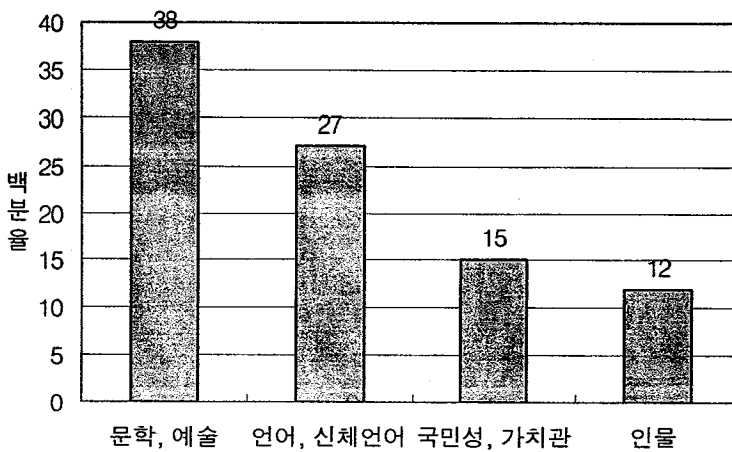
<그림 4-3> 물질문화 하위 항목

마지막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문화는 행동문화와 물질문화보다는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신문화는 생활양식이나 관습에 관한 행동문화와 그 문화가 이루어 놓은 자연, 의식주와 같은 물질문화를 바탕으로 학습될 수 있으며, 다른 문화유형에 비해서 정신문화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신문화의 경우 인지적으로 성숙되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상위학년의 교과서에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영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행동문화인 사회활동이나 교육/학생활동을 많이 다루고, 정신문화는 크게 많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문화의 다섯 가지 하위 항목 중 문학/예술 항목은 C교과서의 말하기 영역에 문학 작품이 다수 실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4-4>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인 역사/종교는 가장 낮은 빈도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제 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 과정에 중학교 1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200개 내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에 한계를 느껴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역사/종교 항목은 1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요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림 4-4>은 정신문화 하위 항목을 빈도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4> 정신문화 하위 항목

실제 분석한 3종 교과서는 행동문화와 물질문화에 속한 비교적 하위항목들을 거의 다 다루어 준 것에 비해 정신문화의 하위항목을 다루지 않은 것도 있다. 정신문화에 속한 국민성/가치관이나 역사/종교 그리고 문학/예술에 대한 항목은 거의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 몇몇 특정 항목의 문화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골고루 제시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교사 또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문화내용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학습시키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취급되지 않는 문화내용을 교사가 직접 겪은 일이나 다른 매

체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문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1.2 교과서별 문화 유형 분석

정신문화, 행동문화, 물질문화에 대하여 교과서별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 교과서 분석 결과

<표 4-1>에서 나타난 것처럼, A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동문화는 30회 다루어져 65%를 차지하며, 물질문화가 11회 다루어져 24%를 차지하고, 정신문화는 5회 다루어져 11%를 차지하였다.

먼저, 65%를 차지하고 있는 행동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문화 중에서 사회활동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법/규범/범죄 항목이 가장 적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식당에 갔을 때의 예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한국에서의 식당 예절과 비교하였다. 한국에서는 식당에 갔을 때 보통 빈자리를 찾아 앉으면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점을 제외하고는 웨이터가 자리를 안내해 줄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터는 인원수와 흡연여부에 따라 자리를 안내해준다.

법/규범/범죄 항목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비롯하여 사회적 규약에 속하는 긴급구조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한국의 긴급구조 전화번호는 119이지만, 미국의 긴급구조요청 전화번호는 911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할 때에는 112로,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

거나 긴급구조를 요청할 때에는 119로 구분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911이면 범죄신고 뿐 아니라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999가 긴급구조 전화번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 신고, 화재 신고, 긴급 구조 요청 번호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음은, 24%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식주에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문물/환경과 교통/통신/과학은 아주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의식주 중에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영미권의 식당에서는 보통 차림표에 나와 있는 음식 하나하나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주문 받는다.

마지막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성/가치관 그리고 언어/신체언어와 관련된 항목이 좀 더 많았고, 인물, 문학/예술과 관련된 항목은 적었다.

다음은 국민성/가치관에 해당하는 예를 보여주는 교과서의 내용이다.

Teacher: Minho, I'm very happy with your homework.

Your English is very good.

Minho: No, no. My English is not good.

Teacher: But your English is very good.

And you're a good student.

Minho: No, I'm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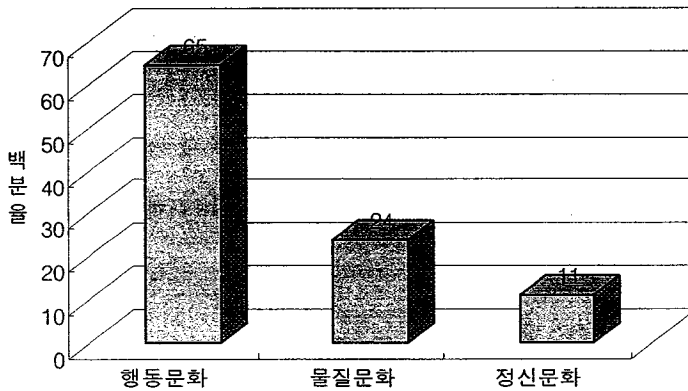
Teacher: ???

우리 한국인들은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데 있어서 인식하여 물건을 살 때도, 호텔로비에서 도움을 받을 때도, “고맙다”라고 잘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에서는 “Thank you”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Thank you”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인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정서를 다루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내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람들의 표현에 대한 문화적 차이점과 그 나라의 국민성과 가치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될 때에는 문화적 충격을 느끼게 되지만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습하게 되면 크게 인상에 남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 교과서는 행동문화 반영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정신문화의 비율이 낮아 문화유형별 분석에서는 고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매 단원 끝에 “LIFE AND CULTURE” 코너를 통하여 문화교육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화 형식이나 만화 등과 설명을 함께 겸비하고 있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 <그림 4-5>는 A교과서의 문화 유형 분포도이다.



<그림 4-5> A 교과서 문화 유형별 분포

(2) B 교과서 분석 결과

<표 4-1>에 나타난 B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동문화는 32회 다루어져 63%를 차지하고, 물질문화가 12회 다루어져 24%를 차지하며, 정신문화는 7회 다루어져 13%를 차지하였다.

먼저, 63%를 차지하고 있는 행동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교과서와 같이 사회활동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사/소개 그리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이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항목 중 병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의 hospital과 Dr's office의 차이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병원(hospital)은 응급 환자나 큰 병이 있는 경우에 많이 가고, 사소한 병이나 간단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개인 병원(Dr's office)을 이용하는데 개인 병원은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다.

24%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통신/과학 그리고 의식주에 관련된 내용이다. 의식주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옷이나 구두 등의 치수를 표시할 때, 한국은 센티미터(cm)로 사용하고 남녀 모두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인치(inch)로 다르게 사용하고 남녀에 따라서 신발 사이즈가 다르다고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의 일부이다.

Salesperson: Can I help you?

Cathy: Yes. I'd like these black shoes.

Salesperson: What size?

Cathy: I'm a size six.

Su-jin: What?

Cathy: My feet are about nine inches long.

Su-jin: How many centimeters is that?

Cathy: Centimeters? We don't use centimeters.

Salesperson: Here. Why don't you try these on?

마지막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신체언어와 국민성/가치관과 관련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많이 나타났다. 국민성/가치관과 관련된 항목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매우 기분이 좋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실 것을 주문하면서 웨이터와 나누는 대화 속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유머를 다룬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 to 4 years”는 “2세에서 4세”를 가리키는 말로 2세에서 4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놀이라는 뜻인데, 본문의 남자와 여자는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는 데 “2년에서 4년 걸린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유머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본문의 일부 내용이다.

A man and a woman walked into a restaurant. They ordered a drink for every person in the restaurant. They were very happy. The waiter asked them, “Why are you so happy?”

They said, “We finished a jigsaw puzzle in only two months.”

“Two months?” the waiter said. “It doesn't take that l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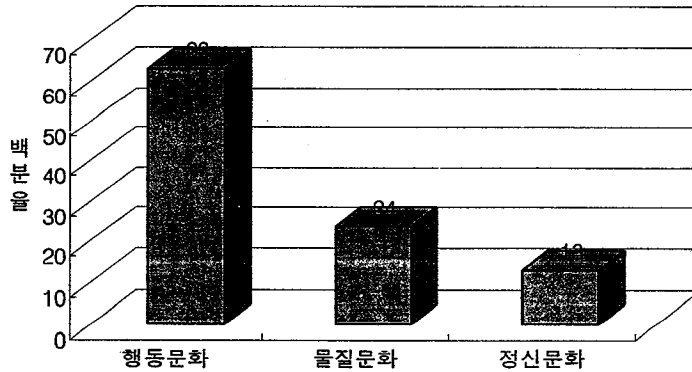
“That's not true,” said the woman.

“It said 2 to 4 years on the box.”

B 교과서는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행동문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물질문화, 정신문화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Culture to Culture”라는 코너를 만들어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세계의 발명품과 같은 독특한

문화적 소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효과적이며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영미 문화를 소개시켜 문화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단위마다 다루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그림 4-6>은 B교과서의 문화 유형별 분포도이다.



<그림 4-6> B 교과서 문화 유형별 분포

(3) C 교과서 분석 결과

<표 4-1>에 나타난 C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동문화가 21회 다루어져 51%를 차지하고, 정신문화는 14회 다루어져 34%를 차지하며, 물질문화는 6회 다루어져 15%를 차지하였다. A, B 교과서 모두 행동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 순서로 나타났고, C 교과서는 행동문화, 정신문화, 물질문화 순서로 정신문화 비율이 물질문화보다 더 높게 나온 이유는 정신문화 중 문학/예술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51%를 차지하고 있는 행동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두 교과서처럼 사회활동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생활이나 학교 제도 등에 대한 문화 내용을 다루는 교육/학생활동은 두 번째로 많이 다루졌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

다. 그 중 행동문화의 관습적 행사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보면, 미국의 “Thanksgiving Day”, 멕시코의 “St. Anthony’s Day”, 타일랜드의 “Sonkran”, 중국의 “Mid-Autumn Festival” 등의 세계의 고유 명절의 풍습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학생들의 문화 지식을 넓혀 준다. 미국에서는 “Mother’s Day”(5월 두 번째 일요일)와 “Father’s Day”(6월 세 번째 일요일)가 따로 있고, 어린이날은 없다. 또한 한국의 공휴일은 대개 날짜로 정해져 매년 요일이 다르지만, 미국의 공휴일은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정해져 매년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관습적 행사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깨닫게 한다.

34%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B교과서와는 달리 C교과서는 행동문화-정신문화-물질문화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C교과서에 있는 “Talk and talk”에서 “신데렐라”, “툼 소녀의 보험”, “백설 공주”, “서울 쥐와 시골 쥐”, “플란더스의 개” 등 정신문화의 하위 항목 중 문학/예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정신문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이 문학/예술 항목은 일반적인 글보다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재미있는 우화나 동화와 같은 장르의 글을 도입함으로써 이야기 전개를 통해 은연중에 문화적 내용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재미가 있고 동기 부여가 되고 보다 쉽게 영어를 배우게 한다.

마지막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물/환경과 자연에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다. 이 항목 중에서 자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있는 “버킹검 궁전”과 큰 시계인 “Big Ben”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영국은 날씨가 변동이 심하여, 비가 오다가도 오후에는 햇빛이 비춘다는 이야기이며, 가을에 햇빛이 있는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런 날은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가서 햇빛을 즐긴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날씨와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 본문의 일부 내용이다.

Mr. Smith: It's very foggy! I can't see Big Ben or Buckingham Palace.

Tony: By the way, there's a book on your desk.

May I borrow it? Whose is it?

Mr. Smith: The book about London? It's your m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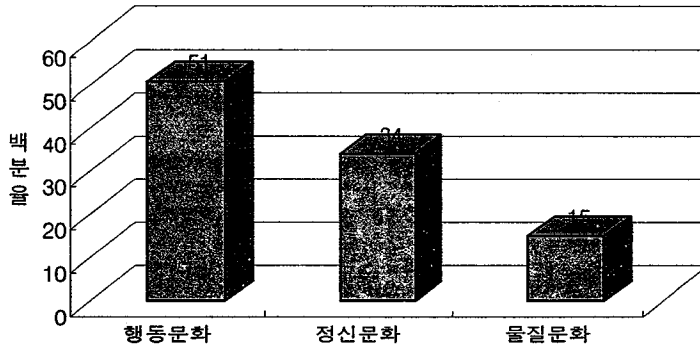
English peopl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What does it mean?

In fall the weather changes very often. In one day it's foggy and rainy in the morning, and sunny in the afternoon. Sunny days are special days in fall. On a sunny day, many people go to the park and enjoy the sun.

C 교과서는 A와 B교과서에 비해 한 단원에 많은 내용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내용이 산만해져 학습자들의 집중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 문화 교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산만하게 나누어진 내용보다는 통일되는 내용으로 반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sujae"라는 학생이 겪는 문화를 만화를 통해서 설명하여 문화를 접근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이 교과서의 장점은 각 단원의 "Talk and Talk"에서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의 상황과 주인공들을 통해 정신문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그래서 C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정신문화가 많이 다루졌는데 그 이유는 교과서 집필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화유형별 빈도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은 C교과서의 문화별 분포도이다.



<그림 4-7> C 교과서 문화 유형별 분포

4.2 언어 기능에 따른 분석 결과

각 교과서의 문화내용이 어떤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문화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2.1 언어 영역별 분석 결과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말하기 영역이 총 44회 다루어져 32%라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듣기 영역으로 39회의 빈도로 2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읽기 영역으로 38회의 빈도로 27%를 차지하였고, 네 번째는 17회의 빈도로 13%를 차지한 쓰기 영역이다. 다음 <표 4-2>는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언어 영역별로 나타낸다.

<표 4-2 >언어 영역별 문화 유형 분류표

(단위: 빈도, ()는 %)

문화 유형	하위 항목	내 용	영 역 별				합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행동 문화	법/규범/ 범죄	사회제도, 법률, 규약, 금 기 등	1	2	1		4(5%)
	인사/소개	인사법, 인사예절 등	6	2	3	3	14(16%)
	가족/일상 생활	가족, 친척, 결혼, 건강 등	1	3	2		6(7%)
	교육/학생 활동	학습, 교육체계, 교실, 학 생활동 등	5	3	2	1	11(13%)
	사회활동	쇼핑, 환경보호, 병원, 직 업, 진로, 친구, 약속, 초 대, 전화 걸기, 길 묻기, 시간 묻기, 다양한 상황 에서의 행동양식 등	8	10	5	5	28(33%)
	편지/일기 쓰기	편지쓰기, 일기쓰기 등			2	4	6(7%)
	관습적 행사	명절,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일, 축제, 풍속, 풍습, 관례 등	2	1	3	1	7(8%)
	여가활동	춤, 운동, 취미, 게임, 여 행 등	3	4	1	1	9(11%)
계			26(59%)	25(64%)	19(50%)	15(88%)	85(62%)
물질 문화	문물/환경	건물, 풍경, 유적지, 유물, 화폐 등	1	2			3(11%)
	의식주	음식, 음료, 의복, 주택, 주거환경, 가구 등	1	4	3		8(28%)
	자연	동물, 식물, 날씨, 지형, 계절, 시차 등	2	4	5	1	12(43%)
	교통/통신 /과학	도로, 교량, 대중매체, 컴 퓨터, 기계 등	1		3	1	5(18%)
계			5(11%)	10(26%)	11(29%)	2(12%)	28(20%)
정신 문화	국민성/ 가치관	가치, 유머, 미덕, 기질, 자세 등		3	2		5(20%)
	역사 종교	역사, 유래, 신앙심, 신화, 전설, 미신 등	1				1(4%)
	언어/신체 언어	속담, 유행어, 손짓, 몸짓, 광고, 관용적 표현 등	1	1	4		6(24%)
	인물	일화, 자서전, 전기 등	2		1		3(12%)
	문학/예술	시, 소설, 희곡, 수필, 우 화, 그림, 음악, 이야기 등	9		1		10(40%)
계			13(30%)	4(10%)	8(21%)	0	25(18%)
전 체			44(32%)	39(28%)	38(27%)	17(13%)	138(100%)

(1) 말하기 영역

각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말하기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44회 다루어져 32%라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중 행동문화가 26회 다루어져 59%를 차지하고, 정신문화는 13회 다루어져 30%를 차지하였고, 물질문화는 5회 다루어져 11%를 차지하였다. 영역별 분석에서도 유형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문화의 비율이 높았지만, 말하기 영역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C교과서의 말하기 영역에 해당되는 “Talk and Talk” 부분에 문학 작품이 많이 실려 있어 문학/예술 항목의 비율이 높아 정신문화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행동문화-정신문화-물질문화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행동문화에서는 사회 활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사/소개 그리고 교육/학생활동에 관한 내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신문화는 문학/예술 항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국민성/가치관 항목은 아예 다루지지 않았다. 물질문화 항목은 전체적으로 빈도는 매우 낮지만, 자연과 문물/환경, 의식주 그리고 교통/통신/과학에 관한 내용이 골고루 나타났다.

(2) 듣기 영역

대부분의 교과서가 각 단원의 제일 앞부분에 듣기 영역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본문에서 소개할 문화적 내용과 상관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듣기는 짧은 대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벼운 소재를 다루었기에 세 가지 유형 중에 행동문화나 물질문화에 많이 할애하고 좀 더 어려운 소재인 정신문화는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문화 내용을 듣기 영역별로 따졌을 때 39회의 빈도로 28%의 비율을 나타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듣기 영역 중 행동문화가 25회 다루어져 64%를 차지하고, 물질문화는 10회 다루어져 26%를 차지하였고,

정신문화는 4회 다루어져 10%를 차지하였다. 말하기 영역에 비해 행동문화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정신문화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물질문화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말하기 영역에서 문학 작품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하고 학생들이 배역을 정해 역할극(role play)을 해 보는 등 특색 있는 활동을 다룬 문학/예술 항목이 높아 정신문화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듣기 영역에는 정신문화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읽기 영역

문화 내용을 읽기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38회의 빈도로 27%를 나타내어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읽기는 그 특성상 문화의 내용을 가장 자세히 깊이 있게 언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언어 영역과 달리 일방적이고 지루할 수 있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보다는 고등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읽기 영역에 반영된 문화는 말하기, 듣기보다 적다. 각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읽기 영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행동문화가 19회 다루어져 50%를 차지하고, 물질문화는 11회 다루어져 29%를 차지하였고, 정신문화는 8회 다루어져 2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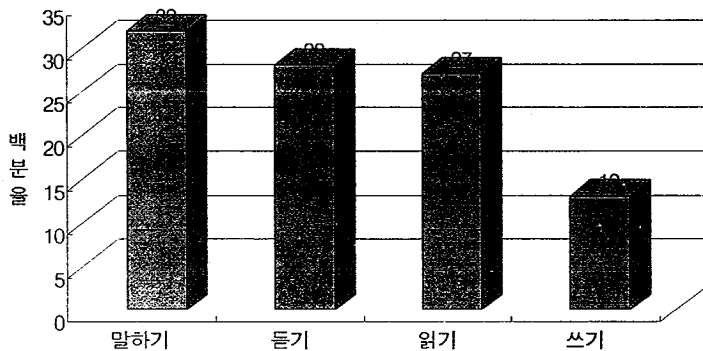
(4) 쓰기 영역

문화 내용을 언어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17회의 빈도로 13%를 차지한 쓰기 영역이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교과서 대부분의 쓰기 활동에 있어 본문에서 다룬 문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편지나 일기 혹은 e-mail 쓰기 같은 형태로, 이미 학습한 문장을 가지고 빈칸 채우기, 한 문장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시켰다. 쓰기 영역을 문화 유형별

로 살펴보면 행동문화가 15회의 빈도로 88%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질문화가 2회의 빈도로 12%에 해당되며, 정신문화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쓰기가 13%의 분포를 나타냈다는 것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쓰기 활동은 아직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의미 전달이 전적으로 문자에만 의존되어 일어나고, 외국어로서의 쓰기는 내용보다 형태의 정확성에 치중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기 활동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인식으로 교과서에서 쓰기 영역에 할애되는 부분은 한 과에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제한되었다.

<그림 4-8>은 3종 교과서의 언어 영역별 분포도이다.



<그림 4-8> 3종 교과서 언어 영역별 분포도

4.2.2 언어 기능별 분석 결과

교과서의 문화내용이 어떤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을 위해, 각 교과서의 네 가지 영역별을 근거로 하여 문화내용을 <표

4-3>에 나타난 음성언어 기능과 문자언어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제 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각각 4가지 영역은 크게 음성언어기능(말하기, 듣기)과 문자언어기능(읽기, 쓰기), 그리고 이해기능(듣기, 읽기)과 표현기능(말하기, 쓰기)으로 나누었다. 아직까지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의 학습 순서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주로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언어를 먼저 도입하고, 표현 기능보다는 이해 기능을 먼저 학습시킨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영어 학습은 주로 음성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음성 언어의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서 문자 언어를 조금씩 다룬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균형적인 학습을 지향한다. 또한 문자 언어의 도입도 초등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표 4-3 > 언어 기능별(음성/문자) 문화 내용 분석

언어기능 교과서	음성 언어 기능		문자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A	12	16	14	4
B	15	14	14	8
C	17	9	10	5
합계	44	39	38	17
	83 (60%)		55 (40%)	

<표 4-3>에서 나타난 것처럼 3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말하기, 듣기의 음성언어 기능이 전체의 60%의 문화 소개를 보였다. 이는 예전의 문자 언어기능 중심의 문법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에서 문자언어보다 음성언어 기능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은 비슷

하나, 쓰기는 읽기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쓰기의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 체계적이고 복잡하여 단위 문장에 정보의 양이 많으며, 사용 어휘가 음성 언어보다 다양하고 많을 뿐 아니라 보다 더 격식 있고 경직되어 있어서 문법에 훨씬 충실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이 학습자로 하여금 음성 언어보다 문자 언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일 수 있으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해 볼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자 언어 특히 쓰기의 영역이 약화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여,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많이 도입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음 <표 4-4>은 문화 내용을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4-4 > 언어 기능별(이해/표현) 문화 내용 분석

교과서 언어기능	이해 기능		표현 기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A	16	14	12	4
B	14	14	15	8
C	9	10	17	5
합계	39	38	44	17
	77 (56%)		61 (44%)	

언어 기능을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으로 나누어 볼 때에는 이해기능을 바탕으로 표현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학년은 이해기능을 많이 도입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언어 기능의 제시 순서를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순서로 고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해, 표현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눌 때는 음성 언어와 표현 언어가 혼합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또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언제

든 이러한 제시 순서는 유동성 있게 바뀔 수 있다. 현행 교육체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비해 문자 언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는 하지만 아직은 음성 언어의 비중이 더 크고 표현기능보다는 이해기능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처음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문화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언어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목표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 관습 등이 반영된 하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은 목표언어의 문화교육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에 언어재료인 '문화' 항목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주된 매체는 교과서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선정·조직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영어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문화교육 내용 또한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새로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상의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유형, 언어기능에 따라 문화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았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형에 따른 분석에서는 행동문화가 60%, 물질문화가 21%, 정신문화가 19%의 분포를 차지하여 행동문화 내용이 가장 많음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초기 외국어 교육에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유형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Brooks, 1964)과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는 Chastain(1976)의 소문화 즉, 생활방식이나 행동양식 등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내용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잘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기능에 따른 문화 내용 분석에서는 말하기 32%, 듣기 28%,

읽기 27%, 쓰기 13%의 분포를 나타내어 음성 언어기능이 60%로 문자 언어기능 4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해기능이 56%로 표현기능이 4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자 언어의 도입이 많아지며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통합적 사용을 전제로 하나,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갑자기 문자 언어의 내용이 크게 늘어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여서는 안 되므로, 음성 언어기능이 문자 언어기능보다 많이 도입된 것은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다루고 있는 코너가 해당 단원의 마지막 부분의 교과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크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시되고 있는 문화내용이 그림이나 사진만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문화소개와는 관련 없는 자료를 싣고 있는 점 등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구성 시에는 우선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목표 문화의 구성요소를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고립된 개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목표 문화와 모국어 문화를 비교해 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문화 내용을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시 발생할 문화충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교과서 문화내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되짚어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연구에 이어 좀 더 효율적인 교과서 모형과, 영어권의 문화적 배경지식을 따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보충교재나 비디

오테잎, CD-ROM 등의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이러한 문화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문화교육에 잘 접목시켜 영어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순영. (2005).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분석*.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Ⅴ)*, 서울: 대한 교과서.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Ⅰ)*, 서울: 대한 교과서.
- 교육부. (2001).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외국어*, 서울: 대한 교과서.
- 구소영. (2005).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소재분석과 지도*.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 김용진 외. (2000). *MIDDLE SCHOOL ENGLISH Ⅰ*.
- 남은희. (2001).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내용분석에 따른 모형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유진형. (1980). *외국어 교육과 문화배경 <논총> 제 36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이강혁. (2005).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읽기 자료에 나타난 문화 내용분석*.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 이병민 외. (2000). *MIDDLE SCHOOL ENGLISH Ⅰ*.
- 이현구. (1997) *영어학 연구*. 서울: 백산출판사.
- 이혜진. (2003).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소재와 내용분석*. 석사 학위 논문, 동덕 여자 대학교.
- 장영희 외. (2000). *MIDDLE SCHOOL ENGLISH Ⅰ*.
- 전정례. (1999). *언어와 문화*. 서울: 박이정.
- Bierstedt, R. (1970). *The social order*. New York: Magraw-Hill Company.
- Brooks, N. (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Brown, H.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rown, H.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Chastain, K. (1976).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Finocchiaro, M. and Bonomo, M. (1973).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A guide for teachers*. New York: Regents Publishing Co.
- Fries, C. C. (1955). *American Linguistics and English Language Learning*. Ann Arbor: Univ. of Michigan. Vol.6
- Gleason, H. A. (1961).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oodenough, H.(1964). *Cultural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endon, U.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1

Choi, Kyeong-Joo
Major in English Educatio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ansung University

The 21th century can be noted not only as the global but also as the information age, in which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and the necessity to do so increase rapidly. In the center of this entire situation Englis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universal language. Because language reflects its socio-cultural environment, students can not fully understand or properly use a foreign language without understanding its culture. The goal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refore, it should be accompanied with culture education. In the EFL context, however, Korean students do no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directly experience English culture, prompting the need to offer some well-organized culture education in

class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any cultural contents are reflected in English textbooks and to examine their appropriatenes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review the literature dealing with the objectives of culture education and cultural contents, as well as official documents specifying the 7th revised version of English curriculum. Then I survey three English textbooks for the first graders in the middle schools that are currently used. I carefully examine the whole chapters of these textbooks, focusing on the cultural contents. I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rvey by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such as cultural patterns and related language skills.

I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following way. First, as for the cultural patterns, I find that the contents dealing with behavioral culture are more than those dealing with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e. Second, as for the language skills, I find that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textbooks are organized in the order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I find that this order, which reflects the view that puts more emphasis on spoken language than the written one, is especially useful for the first graders in the middle schools who have been accustomed to spoken language-oriented education. Since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language skills from culture, I suggest that the aspects of target culture should be incorporated in various forms into the learning situations.

Some of the proposals that I come up with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iven that the wide variety of culture makes it difficult to have them all reflected in the textbooks, I suggest

that the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some clear guidelines for putting cultural contents in the curriculum. I also suggest that compiling some essential contents into a culture-oriented textbook would be an efficient way to present target cultures. Second, I suggest that teachers should not only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culture education, but also be equipped with the useful teaching methods. This helps teachers enable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various levels of cultural contents that are selected and developed for the various needs of the students.